

지역 소식통

정읍시, 2023년 하반기  
귀농귀촌학교 수료식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주관한 2023년 하반기 귀농귀촌학교 수료식이 25일 황토현권역어울림센터에서 열렸다.

체계적인 농업 교육과 안정적인 귀농 정착 도모를 위해 마련된 학교에서 30명의 교육생이 전 과정을 이수하고 100시간의 교육인정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18기 교육생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이론강의와 실습을 병행 평일 한주 교육과 주말 1박 2일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시 귀농귀촌 지원정책, 기본 영농기술과 작목별 재배관리, 현장체험, 농기계 실습, 귀농성공 선드림가 사례발표, 귀농귀촌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등을 배웠다.

농업기술센터 전정기 소장은 "이번 교육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의 귀농귀촌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기술교육 추진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블루베리 재배농가 60여명을 대상으로 명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남농업미스타대학 최구홍 강사를 초청해 겨울철 대비 동해피해 예방을 위한 과원관리 요령과 블루베리 시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블루베리는 산성토양(pH 4.0~5.0)에서 재배하는 작물로 겨울철 관리가 소홀할 경우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강한 전동은 저장양분을 부족하게 하고 조직의 성숙을 지연시켜 동해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수형 관리가 중요하다.

이주연 농촌자원과장은 "정읍 블루베리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술교육과 영농지도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역혁신 공모 4개 사업 선정

## 부안군, ESG 혁신 등 대학 인프라 활용 전략... 도비 10억원 확보

부안군이 전북도 RIS(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혁신 자율 과제 공모에 4개 사업이 선정돼 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

RIS는 전북도의 낮은 재정지출도 및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며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안군은 ESG 혁신형 연구산업 기반 조성 등 군정 주요 전략사업 4개가 선정돼 전북도의 지역혁신 자율과제 사업비 44억원 중 22%에 달하는 10억원을 확보했으며 군비 30%를 부차해 지역과 대학의 공동 발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군이 선정된 사업은 ESG 혁신형 연구산업 기반 조성(전북대학교), 외식 창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음식관광 활성화(우석대학교), 청년 정주형 특

화 Food Biz-R 사업(전주대학교), 이상 기후 대응 급경사지 도로 안전시스템 개발(전주대학교) 등 4개 사업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시기에 대학과 연계한 지역혁신 RIS 사업은 예산 확보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며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대학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 지사협 간담회 개최

## 민관협력 강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부안군은 25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민간위원장 간담회(공공위원장 권익현, 민간위원장 이춘섭)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춘섭 민간위원장, 이준한 실무위원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내 복지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13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협의체간 협업 방안 및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등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관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더욱 긴밀한 협력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단위 주민의 인적 안전망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읍면별로 구성·설치된 법정기구이다. 복지 분야 민관협력 네트워크로서, 위기가구 및 지역자활발달,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거석문화 '고인돌' 주제 특별전시·학술대회 개최

## 고창 고인돌박물관서 '고인돌 숲' 전시·'세계 거석문화로 비춰본 고창 고인돌의 가치' 학술 주제

고창군이 25일 오후 고인돌박물관에서 '고인돌 숲, 신비로운 불의 초대' 특별전시와 '세계 거석문화로 비춰본 고창 고인돌의 가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특별전시와 학술대회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2023년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특별전시와 학술대회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2023년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특별전시와 학술대회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2023년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고창고인돌박물관장(박성호)은 "이번 특별전시와 학술대회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거석문화 속 고창 고인돌의 가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김경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와 발표자 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내년 4월 28일까지 운영되는 특별전시는 세계의 거석문화(巨石文化)와 한국의 고인돌을 살펴보고, 전국 고인돌에서 출토된 80점 이상의 유물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전시와 학술대회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거석문화 속 고창 고인돌의 가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 고창군, '꿈꾸는 옛도심' 프로그램 성황리 운영

고창군이 옛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상생관(조양관) '꿈꾸는 옛도심'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꿈꾸는 옛도심'은 청년상생관(조양관)의 공간을 카페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옛도심지역의 마을주민과 지역 주민을 모집했다. 이후 주민 10명은 현재 전통차 교육과 카페 운영 실무를 교육받고 있다.

총 13회차로 구성된 이론식이 아닌 실습을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참여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고창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내년 초 청년상생관(조양관)을 운영할 주체를 찾고,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

다.

고창 옛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오래된 고창군 고창읍 구(舊)도심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던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창군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 교육사업을 통해 옛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 부안군 등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 행정협의회 출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운 부산 금정구청장)가 지난 20일 오후 2시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23개 단체장 및 부단체장, 실무진,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을 선언,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신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2대 임원진을 선출했는데, 1대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1대 부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재운 부산 금정구청장이 다시 한번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4년 1년이다.

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선출된 임원진을 비롯, 모든 지자체가 협력하여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원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및 연대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가 추진해오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활동은 지방교부세 재원 증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미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에 지원하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운동은 134만199명의 주민동참을 이끌어내어 주민 열원이 담긴 서명부를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개설 추진

정읍시는 협소한 현행도로 폭을 확장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총 4개 노선으로 사업비는 80억원 규모다.

예술회관~양우내안에, 대은사~사랑병원, 관동로~상사길 등 3개 노선은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상동 순정축협~송령교 간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용역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착공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은사~사랑병원 구간은 작은말고 개 도로와 연계성 확보로 상동 북부권 이동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동로~상사길 구간은 노후주택이 밀집된 화계 취약지구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상동 순정축협~송령교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인도가 없고 내장천변로와 연결된 송령교가 당초 1차선으로 차량통행 시 주민불편이 많았으나, 인도를 포함한 2차선 도로로 확장하면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